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 인터뷰

“회계 과잉통제 이제그만... 대-중소법인 상생 생태계”

정민근 안전회계법인 부회장

인위적 기준 시장 분할 옳지않아
감사인 등록 규모별 차등화 필요
회장 독립성 위해 겸직금지 추진

정민근안전회계법인 부회장(65)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차기 회장 후보 가운데 대형회계법인과 중소회계법인의 상생을 가장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35년 동안 대형회계법인에서 일해 온 동시에 한공회에서 직무부회장직을 맡으면서 중견·중소형 회계법인의 목소리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던 터다. 평소 업계에서 아이디어맨으로 꼽혔던 정 부회장이 장담해 그간의 경험을 살려 현실적인 상생 해법을 제시했다.

정 부회장은 8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형·중견·중소회계법인 그리고 개인 감사인은 나름대로 시장을 분할하고 있으며, 이것을 인위적인 기준으로 시장을 다시 나누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회계 산업 전체를 위한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 품질관리는 명확히 해야 하지만 지금은 경영관리나 업무배분까지 규제가 지나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민근 부회장 학력·경력

- 부산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 안전회계법인 감사본부장
- 안전회계법인 공공부문 대표
- 한국공인회계사회 직무부회장 겸 미래전략위원장
- 현 안전회계법인 부회장

주요 공약

- 회계업계 불필요한 과잉규제 해소
- 회장 독립성 강화, 회계법인이나 기업 사회이나 겸직 금지
- 회계산업 상생 생태계 구축
- 중소기업용 감사기준 제정



중소회계법인들에게는 그 자체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정 부회장은 “각각의 조직 운영형태에 맞는 감사품질 관리 모델을 연구해 이를 바탕으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을 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위해 중소기업용 감사기준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회계산업이 지식산업으로서 갖는 자율성은 갈수록 퇴색

하고, 과잉규제와 과잉책임, 과잉징계의 사이클이 강화되면서 과잉통제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는 외부감사인에 대해 과도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책임의 비례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회계 신뢰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봤다.

정 부회장은 “회계투명성 제고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계제도

개혁이 이제 시작됐고, 많은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 결과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회계제도의 안정화 및 발전적 전개를 계속한다면 우리나라 회계 신뢰도는 급속도로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사공영제 논란에 대해서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감사를 감사공영제 도입 등으로 제도화하고, 한공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감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감사기준

을 정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한공회의 입장이 소극적인 면이 있었지만 회계업계의 수익 사업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공익사업의 한 부분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부회장은 “이를 위한 일정 수준의 비용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이 생각하는 한공회는 회계사를 지키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관료화된 한공회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현재의 한공회는 회원권익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망각하고 관료화된 조직이 되어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공회의 구조와 기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안전회계법인을 떠날 계획이다.

그는 “한공회 개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회장은 비상근으로 재직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한공회 회장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회계법인이나 특정기업 사외이사 겸직 금지원칙도 추진되어야 하고, 나부터 이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신한금투, 금융상품 출시 전 과정 ‘소비자보호 강화’

CCO 거부하면 상품출시 안돼 선정·판매·사후관리 전면 개편

신한금융투자에선 앞으로 업계 최고 히트상품이라도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가 거부하면 출시할 수 없다.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상품의 선정,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전면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상품선정 단계에는 상품출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상품전략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합류시켰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 회에도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책임자들이

뺐었다. 상품출시 전부터 강력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판매할 상품을 확정하는 상품출시위원회에서 출시가 의결된 상품이라도 최종적으로 CCO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품은 출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시상품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했다. 금융소비자보호센터와 상품제조부서장, 영업담당 부서장이 함께 하는 상품출시 협의체간에 소비자 영향 분석 결과에 대한 합의 절차를 신설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투자의 위험요인, 구조의 복잡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유무

등을 검토해 보는 심화과정이다.

또 상품제조와 영업담당 임원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소비자보호 정책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판매과정에서는 고객 자산관리 중심으로 성과평가체계를 개편했다. 회사KPI 내 고객수익률, 고객만족도 등 ‘고객 중심 항목’ 비중을 기존 5%에서 18%까지 확대하고, 금융상품 수익을 평가항목에서 없앴다.

사후관리에서는 투자상품 판매 후 금융상품 감리기능을 수행하는 ‘상품감리

부’가 CCO 아래 편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만들어진 상품감리부는 심사, 투자은행(IB), 금융상품 판매 등의 경험을 갖춘 8명의 전문 직원들이 분기마다 감리 결과를 발표한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은 신한지주의 ESG 경영(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과 맞물려 고객의 신뢰회복과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업무 전반에 금융소비자 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 점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손은지 기자 sonumji301@



미래에셋대우-네이버파이낸셜 3%금리+3%적립 ‘네이버통장’ 출시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첫 테크핀 상품인 ‘네이버통장’이 8일 오후 6시에 출시됐다.

네이버통장은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과 제휴해 선보이는 첫 번째 금융서비스다. 하루만 맡겨도 최대 세전 연 3%(100만원 이내)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네이버페이를 연동해 네이버쇼핑을 이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최대 3%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금융과 커머스를 연결하는 신개념 통장인 만큼 편리성에 초점을 맞췄다. 통장개설은 네이버 앱에서 비대면으로 쉽게 할 수 있다. 이용 고객은 하나의 네이버 통장으로 CMA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대우 엠 스톡(m.Stock), 엠 글로벌(m.Global), 엠올(m.All) 앱 등을 통해 국내주식, 해외주식과 펀드 등 금융상품의 거래도 가능하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네이버통장 출시를 계기로 네이버와 더욱 다양한 디지털 시너지 사례를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vin@



신한은행 본점 전경

신한銀, 챗봇 활용 재무제표 입력 자동화

오류 없고, 업무시간 절약 기대

신한은행은 직원용 챗봇 ‘인공지능(AI) 몰리’와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결합해 기업 재무제표 입력 자동화 프로세스를 이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자동화 프로세스 이행으로 영업점 직원이 챗봇 AI몰리에 기업의 사업자번호와 재무제표 발급번호만 입력하면 RPA가 국제청 정보를 조회해 자료를 자동으로 입력한다. 입력 작업이 끝나면 후속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신

청 직원에게 알림 메시지까지 보낸다.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 직원이 직접 자료를 입력하는데 소요되는 20~30분의 시간 절약과 함께 숫자를 잘못 입력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오류 우려도 사라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와 기업의 신용평가 업무가 몰려있는 영업점 직원의 업무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RPA를 추진해온 결과 본부에서 뿐 아니라 전체 영업점 직원들까지 업무에 R

PA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 RPA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업무품질 향상으로 고객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직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해 향후 5년간 21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과 업무 혁신을 결합한 프로세스를 통해 단순 RPA 적용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변화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의 RPA 지향점은 단순 업무 확대에서 벗어나 내외부 디지털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디지털 뱅킹 서비스 창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